

제11회 그랑발레 정기공연

2001

GRAND

BALLET

PERFORMANCE

2001년 12월 15일(토) 오후 7시 30분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후원: 경성대학교 문화부,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경성대학교 동문회

그랑발레(Grand Ballet)는

부산 무용계의 발전과 도약의 시점에서
부산지역의 춤의 활성화와 대중화
그리고 학교간·동인단체간의
폐쇄성을 극복하여
춤의 지역성 확보와 그 단단한 지역성을 바탕으로
1991년 발레 전공자들로 구성·창단된 단체이다.

그랑발레는

빛나고 장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무용예술로서의 발레의 특성을 통해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창작발레를 무대예술로 형태화시켜
창작발레의 발전과 춤 대중화에 앞장서며
진지하고 의욕적인
이 시대의 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단체 그랑발레의 활동취지로 하고 있다.

그랑발레는

창단 이후 매년 정기공연과
젊은 춤꾼들의 창작전, 부산여름무용축제, 무용제 등
각종 춤행사를 통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을 진행시키며
단체의 궁극적 목표인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발레를 추구하고 있다.

때론 지치고 힘들어 그 무게를 잠시 놓아두고 싶을 때마다
연습실에서 열정을 솟아내는 단원들을 보며 전 힘을 얻곤 합니다.
그들의 열정은 곧 그들의 삶이며
이제 그 삶의 일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함께 자리하여 애정어린 참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늘 따뜻한 안식처같은 힘이 되어 주시는 신정희 교수님,
그랑발레의 취지와 의지에 가까이 동참하여
객원 안무를 해주신 곽선영 선생님, 특별출연에 유승진 선생님 그리고
여러 스태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1년 12월

그랑발레 회장 장 정 인

Le spectre de la J

장미의 정

안 무 | 미하일 포킨(Mihail Fokine)

재구성 | 김선희

음 악 | 베버(K. Maria Von Weber)

출 연 | 김옥련, 유승진

프랑스 시인 데오필 고티에의 시 「나는 장미의 요정, 어젯밤 무도회에 당신이 데려가 주었다」에서 착상한 장면을 토대로, 남성 무용수의 도약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다.

청초한 흰색의 무도회복을 입은 처녀와 분홍빛 장미가 수놓인 의상을 입은 장미의 정령과의 파드되로 이루어진 1막 발레로 남성무용수 Nijinsky의 전설적인 도약을 재현하고자 한다.



Rose



Move

움직이다

안 무 | 장정인

음 악 | Kral Jenkins 외 편집

출 연 | 석성희, 정진우, 이동건

항상 다른 모습을 꿈꾸는 여자
그녀의 진실과 그녀의 거짓은?
그녀의 사랑과 그녀의 무관심은?

여자는 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Frescos

프레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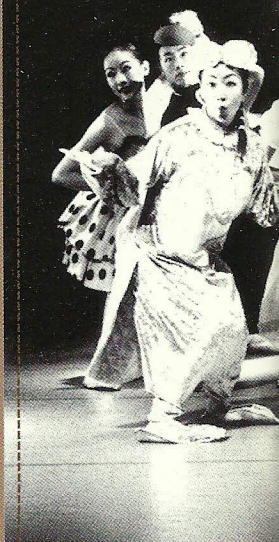
안 무 | 레옹(Léon)

음 악 | 세자르 푸니(Cesare-Pugni)

재구성 | 손현이

출 연 | 김선희, 이희영, 최혜령, 서지연

유럽남부의 벽화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은
신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4명이 함께 추는
군무와 각자의 독무에서
발레의 다양한 테크닉을 보여준다.



혼자

안 무 | 곽선영

음 악 | Fatum 외 편집

출 연 | 김옥련

구름 한 무리 지나간 하늘에
언제부턴지 조각달 하나, 외로운 배처럼
딩그마니 떠 있네
세상은 없는 듯 조용하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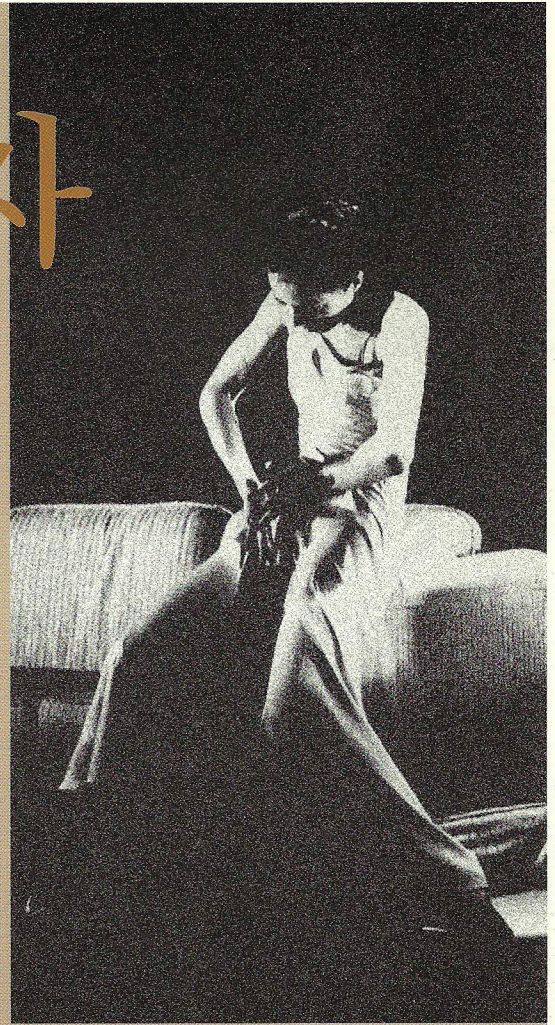
어디로들 간걸까
다들 어디로들 간걸까
저 몰려드는 어둠 속에
혼자 있긴 정말 싫은데

.....

큰 바람이 불려는지
주의가 웬지 으스스하고
멀리 산 등성이에
산발한 나무 하나

.....

- 백 창 우 -



꿈꾸는

비상 III

안 무 | 김옥련

음 악 | 생상(Saint-Saëns) 외 편집

출 연 | 유승진, 김선희, 석성희, 장신영,
이세진, 이희영, 이동용, 박홍기,
강원길, 최연순

나는 깊은 꿈에 빠졌었네
죽어가면서도 삶을 잡고 있는
한 마리의 아름다운 백조가
그 열렬한 삶에의 의지와
황홀로 나를 깨웠네
아~ 내게 부여된 삶을
난 영원히 사랑할 수 밖에 없네

